

# 민란에서 촛불까지

---

①

## 한국 사회운동 입문

---

1차시. 영화를 통한 농민 저항 이해

2차시. 조선시대의 일상적 저항과 민란

3차시. 조선시대의 정치적 저항과 변란

4차시.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의 흐름 ①

5차시.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의 흐름 ②

6차시. 한국사회운동사 개괄



# 01

## 1. 한국 사회운동 입문

### 학습 목표

- 조선시대 민중 저항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 개항기와 식민지시대 민중 저항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해방 이후 현대 한국 사회 민중 저항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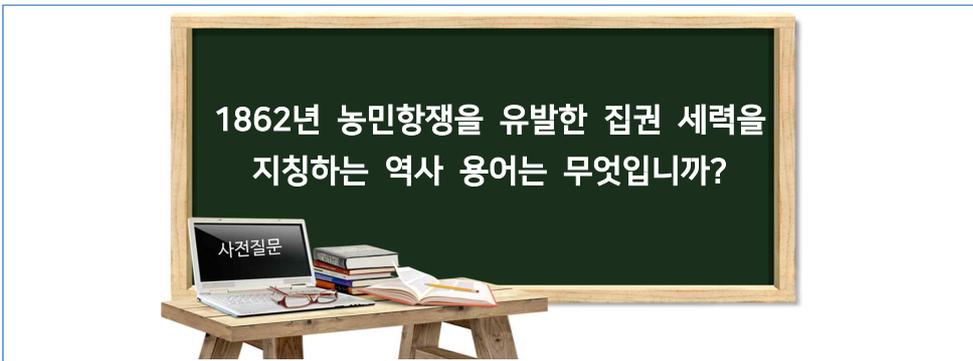
### 1. 들어가기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네이버 영화 제공>

본 강좌는 조선시대 민란에서 최근의 촛불항쟁까지 한국사회운동사의 주요 사건을 다룹니다. 1주차에서는 전체 강좌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조선시대 농민저항을 다룬 영화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14년 개봉 영화 <군도>는 도적이 된 농민, 집단 봉기한 농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도>의 역사적 배경은 추설이라는 도적 집단과 1862년의 전국적인 농민항쟁입니다. 그렇다면, 추설이라는 도적 집단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집단일까요? 도적 활동도 농민 저항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추설과 1862년 농민항쟁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 2.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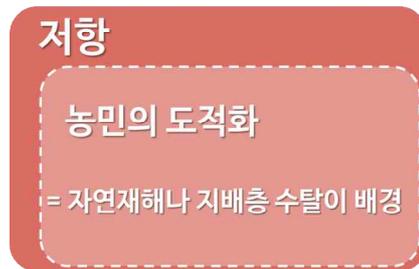


정답 ( 안동 김씨  
세도정권 )

### 3. 학습하기

#### 1) '추설'과 '농민항쟁'과의 연관성

영화 <군도>의 배경이 된 추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근거를 둔 자들은 '목단설'이요, 삼남에 있는 이들은 '추설'이라 하여 왔습니다. '북대'라는 것은 무식한 자들이 임시로 작당하여 민가나 텃고 약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추설, 목단설 등은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스럽게 활동한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1862년 농민항쟁이 삼남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추설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는 영화적 상상력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의 도적화도 자연재해나 지배층의 수탈이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저항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62년 농민항쟁은 토지에서 이탈한 도적이거나 비밀 조직이 아닌 자신들의 생산 근거지를 기반으로 한 농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 농민들 사이의 상호 연계 없이 각 지역의 부세 문제를 배경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추설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 4. 요약하기

영화 <군도>는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도적 집단과 농민항쟁을 연관 지어 당대 농민들의 삶과 저항을 흥미롭게 영상화하였습니다.

### 5. 출처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스틸컷 '탄압 받는 나주 백성 '장씨''

(출처: 네이버 영화,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aver?code=99752&imageNid=6411568>, 검색일: 2021.12.07.)